정인보와 석주명, 그리고 남계우

정민(한양대 국문과 교수)

Ⅰ. 머리말

이 글은 위당 정인보(鄭寅普, 1893-1950) 선생과 나비학자 석주명(石宙明, 1908-1950)의 교유와, 위당이 석주명을 위해 써준 두 편의 장편 한시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둔다. 1949년 3월에 위당은 석주명의 『한국본위세계박물학연표』에 얹은 서문에서, "내가 석교수를 만난 지도 어느덧 십 오륙년이나 된다."고 썼다.[1] 그러니까 두 사람은 1933년을 전후한 시점에 처음 만났다. 당시 석주명은 25세의 젊은이였고, 정인보는 41세의 중년이었다. 석주명이 23세에 송도고보 박물교사로 취임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요, 이제 막 나비 연구를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구체적 계기는 알 수 없다.

이후 위당은 석주명이 세계적인 나비 학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고, 그의 학문이 나비에 머물지 않고 지리학과 언어학으로 확장되어, 제주방언연구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경이의 눈길로 지켜보았다. 위당은 석주명이 조선 나비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자의 반열에 올라서고, 나아가 국학을 견인하는 선도에 선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석주명은 이따금씩 위당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고, 『담원문록(薝園文錄)』에는 위당이 석주명을 위해 써준 7언 50구의 장편 한시가 실려 있다. 또 석주명의 따님 석윤희 선생이 그간 미국에서 보관해온 10곡 병풍에 쓴 위당 친필 「일호호접도행(一濠胡蝶圖行)」은 석주명이 소장한 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 1811-1890)의 호접도 10곡 병풍을 보고, 그 감상을 담은 장시다. 이 시 또한 석주명의 요청을 받고 지었다. 이 작품은 『담헌문록』에도 누락된 것을, 현 소장자인 위당 선생의 아드님 정양모 선생의 후의로 사진 자료를 제공 받아 전체 작품을 이 글에서 처음 소개하게 되었다.[2]

석주명은 『조광』 1941년 3월호에 발표한 「남나비전」을 비롯해 남계우의 호접도에 관한 글을 여러 지면을 통해 잇달아 소개하여 나비 화가 남계우(1811—1890)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3] 석주명이 남계우의 그림 속에서 남방공작나비를 발견해 연구에 활용한 예화는 유명하다. 따라서 이 글은 남계우와 석주명,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림과 학문을 기록한 정인보의 시 두 수를 통해 나비의 인연으로 이어진 만남을 추적, 정리코자 한다.

---

1) 정인보, 「서」, 『한국본위세계박물학연표』(신양사, 1992) 수록.

2) 「일호호접도행」에 대해서는 안대회 교수가 10년 쯤 전에 문헌과해석 모임에서 이 작품의 존재를 알리는 간략한 소개를 한 적이 있다. 금번 논문 작성시에 당시의 발표문과 사진을 도움 받았다. 사진은 해상도가 흐려, 수소문 끝에 정양모 선생께서 원본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사진 자료를 제공받아, 전체 원문을 확인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3) 석주명,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 『朝鮮』, 1939년 1월호, 80-87면.
석주명, 「朝鮮産蝶類研究史」, 『朝光』, 1940년 2월호, 286-289면.
석주명,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第2報), 『朝鮮博物學會雜誌』(朝鮮博物學會, 1940. 8. 20) 제 7권 제 28호, 15-19면.
석주명, 「南나비傳」, 『朝光』 1941년 3월호, 257-259면.

Ⅱ. 석주명의 남계우론

남계우는 나비 그림으로 당대에 이름이 높아, 별명조차 남나비였다. 나비 연구에 미쳐서 논문 한편을 쓰자고 167,847개체의 배추흰나비 표본을 대나무 자로 재서 개체 변이를 연구했던 석주명이 그의 그림을 보고 그에게 빠져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석주명은 30세 때인 1938년 영국의 왕립아시아학회로부터 『조선산 나비 총목록』의 집필을 의뢰받고,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그는 이 작업의 과정에서 고전자료에 나타난 조선산 나비 관련 기록을 조사하다가 남계우의 나비 그림과 처음 만났다. 이 책은 1940년 『A Synonymic List of Butterfiles of Korea』란 제목으로 간행되어 전 세계 나비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석주명은 남계우에 관한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처음 1939년 1월에 『조선』에 「一濠南啓宇の 蝶圖に就て」를 발표한 뒤, 이듬해인 1940년 8월에는 『조선박물학회잡지』에 후속편으로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를 다시 발표해 남계우의 호접도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진행했다.

두 번째 글에는 석주명이 1939년에 동대문 밖으로 당시 68세이던 남계우의 후손 남정의(南廷懿)를 찾아가 족보를 확인하여 그의 정확한 생몰연월일과 그 밖의 생애 사실을 확인한 사정을 적었다. 또 남정의의 처형이었던 한학자 정병조(鄭丙朝)의 주선으로 김경승(金景承)이란 이가 1939년 12월에 그린 남계우의 연필 초상화가 수록되어있다.

또한 이 두 편의 글 속에는 자신이 직접 검토한 남계우의 각종 호접도와 화폭에 그려진 나비의 종류와 개체수를 꼼꼼히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석주명 자신이 소장했던 4척×1척2촌5푼 크기의 중국산 옥판선지에 그린 10폭의 병풍이 뒷 절에서 살펴볼 위당이 「일호호접도행」에서 묘사한 원본 작품일 것으로 판단한다.[4)]

이외에도 석주명은 1940년 2월호 『조광』에 「조선산접류연구사」란 글을 발표해 자신이 남계우의 호접도와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글 속에는 조선산 접류 연구에 있어 흥미를 끄는 2건의 자료를 제시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남계우의 나비 그림에 관한 것이었다.

> 일생을 통해서 나비를 애호했으며 또 나비를 그린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나비를 좋아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16세 때 서울 남송현(南松峴) 당시 당가지골이라고 하는 현재의 조선은행 뒤 자택에서 날아간 나비를 따라 십리나 의관을 단정히 입지 않고 뛰어가서 마침내 동대문 밖에서 그 나비를 잡고야 돌아왔다는 에피소드만 들어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
> 일호는 나비를 잡아서는 흔히 책갈피에 차례로 넣어 두었다는데, 춘하추동 사절 어느 때나 기분이 날 때마다 책에서 나비를 꺼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일호가 그린 그림은 대부분이 실물 크기로 원색대로 그려져 있으니, 씨의 그림은 요사이 우리가 흔히 보는 도보(圖譜)와 같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나비를 창에 대고 그 위에 용지를 비치고 연필이 없던 때라 연필 대신 버들가지로 숯을 만들어 먼저 나비의 윤곽을 뜨고 그 위에 중국 물감으로 원색대로 칠했답니다.
>
> 일호의 접도(蝶圖)를 우리가 보면 그린 나비가 어떤 종류이며, 수놈인지 암놈인지, 또 어느 계절의 나비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으리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그의 걸작

4) 석주명,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第2報), 『朝鮮博物學會雜誌』제 7권 제 28호(朝鮮博物學會, 1940. 8. 20), 15면.

> 이 30대에 많았다면, 그의 걸작은 지금으로부터 근 백 년 전의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따라서 전세계 사학계(斯學界)에 소개해서 손색이 없을 것이외다.[5]

석주명은 남계우의 화접도를 처음 보고, 그림 속에 묘사된 나비그림이 거의 도보(圖譜) 수준의 정밀성을 갖춘, 학술적으로 가치 높은 과학적 그림임에 크게 놀랐다. 품명과 암수 구분은 물론 봄가을의 개체 차이마저 변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석주명은 같은 글에서 남계우의 나비 그림이 일본서 국보 취급을 받는 『프라이어의 접도(蝶圖)』에 견주어도 수준이 더 높다고 극찬했고, 그럼에도 그의 그림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나비 학자가 조선에 없었고, 그의 그림이 외국 곤충학자의 눈에 띌 기회를 갖지 못해서였을 뿐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이 말대로 그는 일본어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해서 국제 나비학계에 남계우의 존재를 알렸다.

석주명은 처음 남계우의 그림을 보았을 때 흥분을 느낄 정도로 고양되었고, 이런 그림을 조선 사람이 그렸다는 사실에 크게 고양되어 상상 이상의 기쁨이 샘솟았다고 고백했다. 석주명은 나비 학자답게 남계우의 호접도를 자세히 관찰하여,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인근의 나비를 그렸음을 확인하였고, 그림 속에 표현된 나비의 종류가 무려 37종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두었다. 또한 이 가운데 몇 종류의 나비는 경기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과거 이 지역의 생태가 지금과 달랐음을 알게도 해주니 참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6]

그는 이후 지속적으로 남계우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더욱 수집하여 「남나비전」을 썼다.[7] 글의 부제가 '세계적 곤충생태화가'다. 남나비는 나비 그림만을 그린 남계우를 부르는 당시의 애칭이었다.

> 여하튼 옛날 사람이 이런 학술상 가치를 가진 즉 생물학상 문헌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데 대해서 필자는 만강의 경의를 표한다. 미국에는 백 여년 전에 남긴 훌륭한 조도(鳥圖)가 있어서 요새 대단히 떠들고 있는데, 일호의 접도는 이 미국의 조도에도 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접도에 있어서는 일호의 것이 시간적으로나 우수한 점으로 보아 아마 세계의 관(冠)이 될 것 같다. 전기(前記) 등왕(滕王)의 협접도(蛺蝶圖)란 것은 천수백년 전의 것이지만 현재로는 전설적 존재에 불과하고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있는 원산응거(圓山應擧, 1733-1795)의 곤충도보(昆蟲圖譜)도 일호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응거의 그림은 연대가 오랬을 뿐이지 그림으로는 종류의 식별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학적으로 참고 될 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8]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까맣게 잊혀졌던 일호 남계우의 생애와 그의 호접도가 지닌 가치가 생생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해외 학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석주명은 남계우의 그림을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 흥미로운 연구를 보여주었다. 그는 앞선 두 편의 논문에서 옛 그림도 나비 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연구의 자료가 됨을 실증해 보였다. 이 같은 연구는 그 이후로 달리 유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남계우가 남긴 100년 전 그림을 통해서 살피면, 남방공작나비나 붉은점모시나비 같은 종류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아직도 서울서 가까운 용문산에만 가면 잡을 수 있지만, 남방공작나비는 경상남

5) 석주명, 「朝鮮産蝶類硏究史」, 『조광』, 1940년 2월호, 286-289면 참조. 표기법은 필자가 현대어로 고쳤다.
6) 석주명, 「朝鮮産蝶類硏究史」, 『조광』, 1940년 2월호, 286-289면 참조.
7) 석주명의 「남나비전」은 『조광』 1941년 3월호, 257-259면에 수록되어 있다.
8) 석주명, 「남나비전」, 『조광』 1941년 3월호, 259면 참조.

도 구포에서 잡은 표본이 내게 단 한 마리 있을 뿐이다."[9]라고 하여, 남계우의 그림을 100년 전 조선의 나비 생장의 생태 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요긴한 자료로 원용하기도 했다. 그저 화폭에 담긴 나비 그림이 학술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된 희귀한 사례에 해당한다.

Ⅲ. 정인보의 석주명론

이제 위당 정인보가 남긴 두 수의 한시를 차례로 읽어보겠다. 첫 번째 살펴볼 작품은 『위당문록(爲堂文錄)』권2에 수록되었다. 제목은 「석주명 군이 박물학을 공부하다가 나비 종류를 정밀하게 전공하여 성대하게 명가가 되었다. 그 연구의 마음이 적막하고 뜻을 씀에 나뉘지 않음을 공경한다. 매번 만나 얘기하면 문득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지난 번 내게 글씨를 청하므로 이 시를 지어서 써준다.(石君宙明治博物, 因專精蝶類, 蔚爲名家. 敬其究心寂寞, 用志不分. 每晤輒移晷. 頃求余墨跡, 乃賦此詩, 書贈.)」로 다소 길다.[10] 7언 50구로 358자에 달하는 장편이다. 기승전결로 나눠 살펴본다.

1 東風三月蛺蝶飛　3월이라 봄바람에 나비가 날아오니
2 大者小者出愈奇　크고 작은 놈들이 나올수록 기이하다.
3 一例汎汎看粉翼　그저 보면 모두 다 나비로만 볼 것이니
4 孰居無事細研推　그 누가 할 일 없어 세세히 연구하랴.
5 有才且勤吾少友　나의 젊은 친구는 재주 있고 부지런해
6 獨向此物殫心思　유독 나비 향하여 마음을 온통 쏟네.
7 深山絶壑足重繭　깊은 산 골짝에서 발이 온통 부르트고
8 庭曲墻頭眼常馳　뜨락과 담장 머리 눈은 항상 내달리지.
9 分刊形色入毫末　형태 빛깔 잘게 나눠 털끝까지 들어가니
10 牝牡老幼無參差　암수와 노유(老幼) 구분 하나도 틀림없네.
11 亦有南北土以別　또한 남북 나누어서 땅으로 구분하고
12 亦有後先候爲期　또한 앞뒤 분간하여 계절로 가른다네.

1구에서 12구까지가 도입부다. 시를 지을 때가 음력 3월이었던 듯하다. 그저 보면 평범한 나비일 뿐이니 바쁜 세상에 누가 이런 미물에까지 관심을 쏟겠는가? 위당은 석주명을 '오소우(吾少友)', 즉 나의 젊은 벗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비를 재주 있고 또 부지런한 벗이 온 마음을 쏟아서 연구한다. 나비를 채집하려 깊은 산속과 계곡을 발이 부르트게 쏘다니고, 집에 있을 때도 뜨락과 담장 머리로 날아가는 나비조차 놓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채집한 나비는 형태로 나누고 빛깔로 구분해서 크기를 재고 특징을 기록한다. 암수를 가르고, 성체(成體)와 유체(幼體)를 살피며, 산지와 계절로 갈라 착착 분류한다.

13 授徒崧陽近山澤　개성(開城)에서 가르치매 산과 못이 가까워서
14 弟子捕蝶以娛師　제자들 나비 잡아 스승을 즐겁게 하니

9) 이병철, 『위대한 학문 짧은 생애』(그물코, 2011) 116면에 실린 나비 채집회고담 중 인용.
10) 정인보, 『위당정인보전집』(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5책 228면에 친필 초고가 실려있고, 정양완 역, 『담원문록』3책(태학사, 2006) 중 상권 455면에 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의 번역은 필자가 새롭게 했다.

15 先生顧笑汝良苦　선생은 웃으면서 “너희 정말 수고했다.
16 八域吾今未見稀　팔도에 내 이제 안 가본 곳 드물다네.
17 不咸山上池五色　백두산 위 천지 물은 빛깔이 다섯 가지
18 漢拏白雲鹿群回　한라산 흰 구름에 사슴 떼가 돌아온다.
19 瞥見異蝶林間度　숲 지나다 기이한 나비를 잠깐 보니
20 奇景於我何有哉　기이한 풍경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랴.”
21 課罷一室蝶如海　수업 끝난 교실에는 나비가 바다 같아
22 倦極對此卽心開　피곤해도 이것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23 久久神行不以目　오래도록 눈이 아닌 정신으로 살펴보니
24 秩然自整不待爲　질서 절로 정연하여 작위함 필요 없네.
25 滕王萬蝶自粗笨　등왕의 〈만접도〉도 보잘 것 하나 없고
26 柳攷李譜豈足披　유희『물명고』이만영『재물보』어이 족히 뒤적이랴.

제 13구에서 26구까지는 개성 송도고보에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나비를 채집하고, 자신 또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나비 채집에 몰두하는 정황을 묘사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풍광이 비록 좋다 해도, 숲을 지날 때 기이한 나비와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나비에만 정신이 팔렸다고 썼다. 이 대목은 석주명의 시점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석주명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60만 마리 나비 표본이 꽉 들어찬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를 계속했다.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도 나비만 보면 힘이 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나비와 함께 살다보니,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절로 알게 되어, 나비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절로 정돈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영국왕립아시아학회의 의뢰를 받고, 그 세계적인 대저서를 불과 2년 만에 간행해 낸 것만 보더라도 평소의 온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의 작업에 견줘볼 때 전설로만 남은 등왕의 호접도는 누추하기 짝이 없고, 유희의『물명고』와 이만영의『재물보』에도 나온 적 없는 각종 나비의 이름과 내용들이 석주명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놀라운 성과를 높여 기렸다.

27 方今東西學日殖　오늘날 동서양에 학문 날로 번성하여
28 菑耘不肯遺半畦　밭을 갈아 반 두둑도 남겨두려 않는다네.
29 倚君精博與之相吐欵　그대의 정박(精博)함 기대 함께 얘기 나누자니
30 有時員輿改色一蝶知　세상이 낯빛 고쳐 나비 알 날 있겠구려.
31 男兒羞隨湛湛衆游泳　사나이는 남 따라 헤엄침을 부끄럽게 여기니
32 決起一層要使水面卑　결연히 한층 떨쳐 수면을 낮춰야 하리.
33 猶然志壯進未已　여전히 그 뜻 장해 나아감 멈추잖아
34 又討古籍辨然疑　옛 책을 또 토론하며 의심을 따져보네.
35 廢人如我亦屢訪　나 같은 늙은이를 또한 자주 찾아주니
36 病枕爲君軒雙眉　병석에서 그댈 위해 두 눈썹을 펴곤 했지.
37 學無小大期得實　학문에는 대소 없고 진실 얻음 기약할 뿐
38 透處宇宙相往來　깨달으면 우주라도 서로 오고 가리로다.
39 盡道此不關人事　이것이 사람 일과 상관없다 말들 하나
40 有無關人何足訾　상관이 있든 말든 어이 족히 나무라랴.

제 27구에서 40구까지가 다시 한 단락이다.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 학문의 추세로 운을 뗀 뒤, 위당 자신과 석주명과의 대화 장면 및 그에게 거는 기대와 당부를 적은 대목이다. 이제 학문의 영역은 나날이 분화되어 세분화되고 있다. 생물학이 곤충학으로, 곤충학은 다시 나비학으로 갈라지고, 여기서도 다시 분야가 세분되어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닿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대의 공부는 정밀하고도 박식하다. 그대에게서 나비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노라면, 머잖아 세상이 그간 하찮게만 보던 나비를 향한 시선을 고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대가 남들을 붙좇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한층 더 발전하여 더 높은 경지를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이어 위당은 석주명이 병석에 누워 바깥출입도 하지 않는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와서 기쁘게 해준 일과, 학문에는 크기는 없고 깊이가 있을 뿐이며, 그것은 실득(實得)의 유무로 기준을 삼을 뿐이라는 말로 석주명을 권면했다. 혹자는 하찮은 나비 같은 것을 연구해봤자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며 얘기하지만, 학문은 그 자체로 합목적적이니,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의 근시안적 안목이야 탓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41 世嬗玆土人與物　세상이 이 땅에 사람과 물건 전했건만
42 自吾家事治已遲　내 것부터 살피기도 이미 늦어 버렸구나.
43 況復森羅皆交錯　하물며 삼라만상 모두 섞여 있고 보니
44 從古一物恥或遺　예로부터 한 물건도 빠뜨릴까 부끄럽네.
45 榮辱得喪總錄錄　영욕과 득실이야 하잘 것이 없나니
46 能樂方知天與才　즐길 줄을 알아야만 하늘이 재주 내림 안다네.
47 金朱黃黑晩無數　온갖 빛깔 나비들이 늦도록 수도 없어
48 花徑扶杖日午時　꽃길에 지팡이 짚자 날은 정오 때였었지.
49 滾飛雜鬪從汝亂　마구 날며 섞여 다퉈 네 멋대로 뒤섞여도
50 早入君手不紊絲　그대 손에 들어가면 어지럽지 않게 되리.

제 41구에서 50구까지가 마무리에 해당한다. 이 땅 이 터전을 물려받아 살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깥 것에만 고개를 기웃댔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삼라만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연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영욕과 득실 같은 것은 다 하잘 것 없는 일일 뿐이다. 오직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해 낼 수가 있다. '능락(能樂)' 즉 능히 즐길 수 있으려면 애정이 있어야 하고, 깊이 들여다 봐야 하며, 무엇보다 정심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 우리 눈앞에 온갖 빛깔의 화려한 나비들이 수없이 날고 있다. 꽃길로 산책을 나서면 온통 나비 천지다. 저 어지럽게 많은 갈래를 둔 제각금의 나비들이, 일단 그대의 손길을 거치기만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을 확신한다. 위당은 이 같은 취지로 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시를 지은 시기는 분명치가 않다. 석주명이 아직 송도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써준 것은 분명하다. 석주명은 송도중학교 교사직을 1942년 3월에 사임했다. 위당은 1940년 가을께 일제의 폭압에 맞서 학교를 사직하고 솔가하여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으로 은거했다.[11] 이

11) 김삼웅, 『위당 정인보 평전』(채륜, 2016) 참조.

시는 이 창동 시절에 석주명을 위해 써준 것으로 본다.

석주명은 송도에 교사로 재직하던 20대 중반부터 위당과 교분이 있었고, 이후 그가 세계적인 나비 학자로 명성이 드높던 30대 초반에도 서울 걸음을 할 때마다 위당을 찾아가 나비에 얽힌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나비와 관련된 한문 고전 자료의 발굴과 번역 상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당은 석주명이 1949년 3월에 펴낸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에도 서문을 써주었다. 이 글 또한 위당 전집에는 누락되었다. 그 서문의 한 대목이다.

> 학우 석주명 교수는 한국 나비 연구의 석학으로 그 존재가 이미 세계적인지 오래다. 그 동안 이 연구에 관한 저술이 남 모르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지위를 올리었다. 그 두뇌와 안목과 솜씨가 실로 아니 들어가는 데가 없을 만큼 정밀하여서 혹 언어학에, 혹 지리학에 무릇 자기 연구하는 바와 맥락이 서로 통하는 곳이면 그 부지런을 쓰지 아니한 데가 없다. 최근에 내어 놓은 제주방언연구도 그 하나다. 무릇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고 우리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는 바에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세계는 우리의 늘임이다. 우리의 가까운 것을 잘 알아서 유취로 군분(羣分)하고 구명(究明)으로 이용으로 쉬지 아니하고 나아가 여기에 이루어지면 일국일물의 발견이 세계의 수준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집 앞에 노는 풀밭이 있는 것이 그 한집의 가난뿐이 아니라 그 나라에 또 세계에까지 끼치는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를 알면 누구나 석교수의 부지런을 고마워하리라.[12]

이 글에서는 나비학뿐 아니라 제주의 방언과 지리학 방면까지 확장된 그의 학문을 높였고, 국학의 연구가 결국은 세계 학문의 수준과 단계를 올리는 일임을 고무해서 말했다. 세계가 우리의 '늘임'이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 늘임은 확장의 뜻으로 썼다. 우리 것을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확장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가 된다는 뜻이다.

위 한 수의 한시 속에 석주명에게 거는 위당의 기대와 그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칭찬, 앞날을 위한 격려까지가 모두 응축되어 녹아있다.

Ⅳ. 정인보의 남계우론

이제 검토할 시는 위당의 「일호호접도행(一濠蝴蝶圖行)」이란 장편이다. 위당은 석주명이 소장하고 있던 일호 남계우의 호접도 10곡 병풍을 직접 보고 나서 이 시를 지어 석주명에게 선물했다. 이 작품은 『담원문록』에도 빠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석주명의 따님인 석윤희 교수가 미국에서 내내 소장하고 있다가 십 년여 전에 공개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작품의 전문이 번역되어 학술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다.

7언 134구, 947자에 달하는 대장편이다. 이 시는 위당 친필로 역시 10폭 병풍에 한 면 4행, 1행 24자의 행서체로 썼다. 작품은 10폭의 병풍을 한 폭 한 폭 떼어내어 세밀하게 묘사하고, 끝에 가서 남계우와 그의 호접도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소중하게 갈무리한 석주명에 대한 칭송으로 마무리했다.

12) 정인보, 「서」, 『한국본위세계박물학연표』(신양사, 1992) 수록.

작품 끝의 서명 부분에 적은 짤막한 발문은 이렇다.

일호 남계우의 호접도 시이다. 내 벗 석주명 군을 위해 짓고 또 쓴다. 이때 내가 병으로 힘들게 지낸 지가 이미 네 해다 보니 시도 글씨도 모두 형편없어 부끄럽다. 담원.

一濠蝴蝶圖行, 爲余友石君作幷書. 時余病困已四年, 詩字俱拙愧愧. 薝園.

시의 창작이 석주명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창작 시기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병으로 칩거한 지 4년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창동 칩거 이후 4년이 지난 1944년 경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병풍은 석주명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석주명은 1939년 1월『조선』에「一濠南啓宇の 蝶圖に就て」, 1940년 8월에는『조선박물학회잡지』에「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를 연속 발표했다. 이 두 편의 글은 남계우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한 후 자신이 검토한 남계우의 회화 자료를 분석하여 그의 극사실적 호접도에서 찾아낸 나비의 종류와 개체 특성을 설명하였다. 두 편의 논문은 모두 일본어로 발표했다. 특정 화가의 화폭을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세계 나비 연구사에서 달리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특별히『조선』에 발표한 글에서 석주명은 자신이 소장한 남계우의 호접도 10곡 대형 병풍을 소개했다. 그는 이 그림이 남계우가 전성시대인 30대에 그린 역작이라 하고, 각 화폭별로 화면 속에 보이는 나비의 종류와 자웅, 계절적 특징까지를 소개하고, 일람표까지 만들어서 도표화했다. 그 결과 석주명은 이 10폭의 화폭에서 모두 25종 82개의 나비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석주명이 소장했던 이 10곡 호접도 병풍은 현재 실물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남계우가 그린 10폭의 호접도 병풍은 현재 개인소장의 〈군접도십곡병(羣蝶圖十曲屛)〉 하나가 남아있다. 그림의 구성과 세부 묘사가 시의 그것과 자못 방불하나, 세부를 비교해 보면 석주명이 소장했던 바로 그 10폭 병풍은 아니다. 거의 비슷한 풍과 구도로 만들어진 다른 작품이다.[13] 다만 이 작품은 시의 배경이 된 원작 병풍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위당은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하던 잡지『조선』에 실린 석주명의 이 글을 보았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물 그림을 청해보고, 그의 작업에 긍지를 느껴 이 작품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를 화폭별로 따라가며 읽기로 한다.

1 夫何十幅蝴蝶圖 대저 어찌 열 폭의 호접도 저 병풍은
2 神妙直欲無丹碧 신묘함이 그대로 그림이 아닌듯해.
3 一幅數蝶團戲高 제 1폭은 몇 마리 나비 높이 떠 희롱하고
4 其下又見背飛翼 그 아래로 등져 나는 나비 날개 또 보이네.
5 古怪之石月桂叢 해묵어 괴상한 돌 월계화 덤불 중에
6 鳶尾艸長撫苔石 연미초(鳶尾艸) 웃자라서 이끼 낀 돌 쓰다듬네.
7 花莖裊裊花無力 꽃대는 하늘하늘 꽃은 힘이 없건만
8 鳳子鼓翅闔且闢 호랑나비 날갯짓을 열었다간 다시 닫네.
9 一朶月桂朝露重 한 떨기 월계화엔 아침 이슬 무거우니
10 雌鳳嗅葉若有擇 암 호랑나비 향기 맡음 마치 가림 있는 듯.
11 何來蜻蜓紗翼明 어디서 온 잠자리는 깁 날개가 환한데
12 頡頏紋白與條黑 얼룩진 흰 무늬에 검은 줄을 둘렀구나.

13) 이 그림은 김영애,「남계우의 회화관과 호접도」(고려대 미술사전공 석사논문, 2009. 6)의 부록 도판 71번에 실려 있다. 확인한 결과 이 작품은 1990년 공창화랑과 진화랑에서 펴낸『부산시민소장 조선시대회화명품전』도록 86번 도판에 수록된 작품이다. 작품의 크기나 소장자는 알 수 없다.

13 赤點點翅白爲伍　붉은 점 날개에 박힌 흰 나비 대오 이뤄
14 徐飛意向雌鳳側　느릿느릿 암 나비 곁 향해 날아가려는 듯.
15 又有小翅飛相對　또 작은 나비가 마주 보며 날아가니
16 略似高嶺落陰色　고개 위에 떨어지는 그늘 빛과 흡사하다.
17 石嘴黑者爬苔綠　돌 모서리 검은 놈은 푸른 이끼 앉았는데
18 擧翅露腹右翅仄　날개 들려 배 보이고 오른 날개 기우뚱해.
19 月桂下發枝半臥　월계화 꽃 피어나서 가지 반쯤 누웠는데
20 花香風動苔露滴　꽃향기 바람결에 이끼 이슬 방울진다.

처음 제 1구에서 20구까지는 제 1폭에 대한 묘사다. 화폭의 화면 구성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묘사했다. 열 폭의 호접도 병풍이 너무도 신묘해서 그림 같지가 않다는 말로 처음 서두를 열었다.

제 1폭은 화면 하단에 괴석이 있고, 괴석의 아래 위층의 사이에 월계화 덤불이 피어있다. 또 이끼 낀 바위에는 연미초(鳶尾草)가 돋았다. 연미초는 흔히 패란(佩蘭) 또는 침미봉(針尾鳳)으로도 불린다. 바위 위에 붙어 사는 기생 식물이다. 그 위로 봉자(鳳子) 즉 호랑나비가 날갯짓을 한다. 월계화 꽃술은 이슬이 담뿍 젖어 암컷의 호랑나비가 꽃술을 빠는 것을 낮가림 하는듯하다고 했다. 여기에 다시 흰 무늬에 검은 줄이 있는 잠자리가 날고, 붉은 점이 박힌 흰 나비가 대오를 이루어 너울댄다. 위당은 날개를 들어 배가 보이는 놈, 오른 날개만 기울어진 놈 등 화면 속 나비의 자세까지 묘사할 뿐 아니라, 꽃이 핀 상태까지 섬세하게 포착하였다. 앞선 논문에서는 제 1폭 속에 9종 13개체의 나비가 그려져 있다고 했다. 여기에 잠자리 한 마리를 더해 모두 10종 14개체가 등장했다.

21 二幅盛夏日脚長　제 2폭은 한 여름철 하루해 길고 긴데
22 佳花拂石名未識　바위 곁의 어여쁜 꽃 이름조차 모르겠네.
23 淡紅如葵非掌葉　담홍빛 촉규화는 넓은 잎은 아닌 것이
24 一朶三朶欹且直　한 떨기는 기울고 세 떨기는 곧게 섰다.
25 烏鳳一雙特輕盈　검은 호랑나비 한 쌍이 특별히 너울너울
26 一飛一抱花蕊白　꽃술 흰 꽃 위에 한 놈 날고 한 놈 앉네.
27 遠翔空碧五蝶艷　멀리 푸른 허공 나는 다섯 나비 어여쁜데
28 黃蛺當中鳳子北　노랑나비 가운데 있고 호랑나비 북쪽일세.
29 紋白半翅入鳳子　흰 무늬 날개 접은 나비 호랑나비에게 드니
30 西者翻倒斑的皪　서쪽 나비 거꾸로라 무늬가 선명하다.
31 南來翅立翅背見　남쪽 나비 날개 세워 날개 등이 보이고
32 黃質豹文孤花卽　노란 바탕 표범나비 한 송이 꽃 다름없네.
33 赤星偃蹇如高人　붉은점 모시나비 비틀비틀 고인(高人) 같아
34 相羊花石意不測　꽃과 바위 배회하니 그 뜻 가늠 못하겠네.
35 三蛾緣石俱瑣瑣　바위 붙은 세 마리는 모두 다 잗달아도
36 艸花如豆爾自得　콩알만한 풀꽃에도 너는 만족하는구나.

다음은 제 2폭이다. 화면의 시간 배경을 성하(盛夏)의 오후로 보았다. 바위 아래 피어난 꽃 덤불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접시꽃 같은 담홍빛이지만 잎은 그다지 넓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오봉(烏鳳)과 황협(黃蛺), 황질표문(黃質豹文), 적성(赤星) 등으로 표기된 다양한 품종의 나비들이 형형색색으로 등장한다. 오봉은 호랑나비과의 제비나비 또는 산제비나비 종류인 듯하다. 황질표문

은 노란바탕에 표범무늬란 뜻이니 은점표범나비거나 흰줄표범나비로 보인다. 적성은 붉은점모시나비가 아닐까 싶다. 바위의 콩알만한 풀꽃에 붙은 작은 나비 세 마리는 부전나비 종류로 보인다. 논문에는 모두 8종 11개체의 나비가 그려져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나비 이름의 표기로 보아, 위당이 이 한시를 지을 당시 나비마다 석주명에게 품명을 묻고 그것을 한자로 반영해 짓는 상호 교감 방식의 창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시로 창작할 경우, 중국과 일본까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37 三幅牡丹千葉紅　제 3폭은 모란의 일천 꽃잎 붉었는데
38 老景天晴明厓壁　날 개인 오후 풍경 절벽이 환하도다.
39 一蝶二蝶態遞豪　한두 마리 차례로 그 자태 호방하니
40 往往異色非前覿　이따금 기이한 색 전에 못 본 것이로다.
41 但怪一群蕩空虛　괴이한 건 한 무리 허공 나는 나비 떼가
42 不視國色在咫尺　지척에 있는 국색(國色)을 거들떠도 안 봄일세.

제 3폭은 6구로 간추렸다. 괴석 아래에 모란꽃이 붉게 그려져 있고, 채색이 대단히 화려했던 듯하다. 하지만 모란꽃 근처에는 나비가 한 마리도 붙지 않아 괴이하다고 적었다. 이것은 신라 때 선덕여왕 앞으로 당 태종이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보내왔을 때, 나비를 그리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논문에서는 제 3폭에 10종 14개체의 나비가 그려져 있다고 정리했다.

43 四幅烏鳳翅翻風　제 4폭은 호랑나비 날개가 바람에 뒤집히자
44 零丁小紫意矜飭　잗단 자색 작은 나비 삼가 조심 하려는 듯.
45 追隨差他數蝶狂　그를 좇아 뒤따르던 몇 마리 미친 나비
46 或欲張翅猶惜　혹은 날개 펼치려다 오히려 아껴두네.
47 傍花黏石色色殊　꽃 곁에 붙은 바위 색깔이 모두 달라
48 春水魚行驟緩亟　봄물에 고기 떼가 제멋대로 노니는 듯.
49 良工細心無不到　좋은 화가 세심함이 안 미친 곳이 없어
50 石稜一白幾失索　돌 모서리 흰 꽃송이 거의 줄기 끊어질 듯.

제 4폭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중앙의 호랑나비가 바람에 날개가 뒤집히자, 그 곁의 작은 자주색 나비가 움츠려 조심스레 나는 모습을 그렸다. 바람을 그리지 않으면서 바람이 센 것을 잘 묘사했음을 두고, 화면 하단의 흰 꽃송이가 곧 떨어질 듯 달랑달랑 하다고 썼다. 그림 속에 그려진 바위는 층층이 빛깔이 달랐던 듯하다. 석주명은 제 4폭에서 10종 13개체의 나비를 읽어냈다.

51 五幅萱花間石竹　제 5폭은 원추리가 패랭이 사이 피었는데
52 深園無人花徑寂　깊은 정원 사람 없어 꽃길이 적막쿠나.
53 白嗅鳳嘴鬚不深　백후봉(白嗅鳳)의 주둥이는 더듬이가 깊지 않아
54 蓮紅翅根爾何覓　연홍빛 날개 뿌리 너 어디서 찾을손가.
55 赤星倒飛太醉香　붉은 점 모시나비 향기 취해 거꾸로 날아드니
56 仰視無翅不蕩漾無色不的歷　올려보매 온갖 나비 다 움직이고 빛깔 모두 선명해라.
57 或遺其花淡着葉　혹 그 꽃이 아직 남아 잎에 살짝 붙어 있자
58 從他文鳳長鬚滿意抱花食　긴 더듬이 호랑나비 기분 좋게 꽃을 빠네.

제 5폭은 원추리꽃과 패랭이꽃이 등장하고, 백후봉(白嗅鳳)과 붉은점모시나비, 호랑나비 등이 나오고, 그 위쪽의 여러 종류의 나비들도 모두 선명한 빛깔에 생동하는 날갯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호랑나비는 더듬이를 꽃술에 박고서 꿀을 빨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 12종 13개체의 나비가 등장한다.

59 六幅點點迫媚人　제 6폭은 점점 나비 멀리서 사람 유혹하니
60 金眼鑲裙雙的的　황금 눈에 가선 치마 쌍으로 또렷하다.
61 鳳子行隨小蝶後　호랑나비 작은 나비 뒤편을 따라가고
62 又有前蝶無多隔　그 앞에 있는 나비 간격이 넓지 않네.
63 紅白爲裡藍白衣　홍백으로 속을 대고 남백(藍白)의 옷 입으니
64 月桂花氣汎雙腋　월계화 꽃기운이 두 날개에 떠도누나.
65 可憐繡毬眞擧擧　어여뻐라 수구화가 멋지게 솟았는데
66 一蝶鼓鬚花欲壓　나비 하나 더듬이로 빨자 꽃이 떨어지려는 듯.
67 迂濶巨眼蜻蜓王　저 못나고 눈만 큰 왕잠자리 한 마리는
68 點綴二蟬一半匿　두 매미와 포개져서 절반이 가렸구나.

제 6폭은 제 59구에서 68구까지 10구에 걸쳐 설명했다. '금안양군(金眼鑲裙)'은 황금눈이 박히고 아래쪽에 가선을 두른 치마라 한 것으로 보아 제비나비를 말한 듯하다. 제비나비 두 마리가 날아가고,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그 위쪽에서 작은 나비들의 군무를 뒤쫓아 가는 형상을 그렸다. 작은 나비는 간격 없이 촘촘하게 묘사되었다.

꽃은 월계화와 수구화를 그렸다. 여기에 눈 끈 왕잠자리 한 마리가 매미 두 마리와 함께 그려졌는데 둘은 서로 겹쳐져서 절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비는 8종 10개체, 여기에 잠자리와 매미까지 포함하면 11종 14개체가 등장한다고 석주명은 설명했다.

69 七幅之蝶十又三　제 7폭의 나비는 모두 열 세 마리인데
70 花間層層近或遯　꽃 사이에 층을 나눠 가까이 혹 멀리 있네.
71 大者特豪小者妍　큰 놈은 몹시 크고 작은 놈은 어여쁘니
72 暗綠雙間烏鳳碩　짙은 초록 둘 사이에 검은 호랑나비 털썩 크다.
73 翻倒不是風勢急　뒤집혀짐 바람 형세 급해서가 아니니
74 抱石豈憐如翠翮　안은 바위 어이해 푸른 날개 아끼리오.
75 秖爲園花噴幽馥　동산 꽃이 깊은 향기 내뿜어서 그런 건지
76 一氣容與俱滿臆　한 기운 어느새 뱃속 가득 갖추었네.

다음은 제 7폭이다. 나비가 모두 13마리가 등장하는데, 바위의 틈새로 꽃이 층을 지어 피었고, 그 층을 따라 나비가 멀고 가까이서 난다. 덩치가 큰 놈과 작은 놈이 나는데, 짙은 초록색 날개를 한두 마리 사이에 큰 호랑나비 한 마리가 끼어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제각금인 것으로 보아 바람이 센가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온 동산의 꽃향기가 농욱해서 뱃속에 그 꽃기운이 가득 차 그런 것이라고 보았다. 석주명은 11종 12개체만을 읽었는데, 위당의 시에서는 13개체로 보아 차이가 난다.

77 八幅巖花使人喜　제 8폭은 바위 꽃이 기분 좋게 만드는데
78 粉紅丹砂各傾國　분홍과 붉은 꽃이 저마다 어여쁘다.

79 五蝶弄虛不肯下　다섯 마리 허공 놀며 앉으려 들지 않고
80 八蝶戀花競迫窄　여덟 마리 꽃을 아껴 뒤엉켜 다투누나.
81 烏鳳丹點原自工　제비나비 붉은점모시나비 원래 절로 솜씨 좋아
82 一朶聽汝翅以冪　한 떨기 꽃 너 본다면 날개로 덮으리라.
83 小翅絢采漾如波　작은 날개 무늬 빛깔 파르르 물결 같아
84 驟看異蝶情不克　기이한 나비 문득 보매 정 가눌 길 없도다.
85 渲暈變化多天巧　아롱진 그 변화는 모두 하늘 솜씨거니
86 吁嗟腕底衆妙積　아아! 팔뚝 아래 진귀한 것 쌓여 있네.

다시 제 8폭을 보자. 먼저 다른 화폭에 비해 꽃이 눈길을 끌었던 모양이다. 분홍과 단사는 꽃의 빛깔인데 이것만으로는 꽃 이름을 알기 어렵다. 위쪽 허공에 다섯 마리가 날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꽃 근처에는 여덟 마리의 나비가 꽃에 바싹 다가섰다. 오봉(烏鳳)과 단점(丹點)은 제비나비와 붉은점모시나비를 가리키는 듯하나 분명치 않다. 그밖에 작은 나비들이 화려한 빛깔로 화면을 수놓아서 정을 가눌 수 없다고 썼다. 석주명은 제 8폭에 9종 11개체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로는 11종 14개체라 했으니,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 아마 나방 종류를 나비로 볼지 말지로 엇갈린 듯하다.

87 九幅大蝶多在下　제 9폭은 큰 나비가 아래쪽에 많이 있고
88 上飛一大整不迫　위로 나는 한 큰 나비 가지런히 곱게 난다.
89 黃裡灑點金暫渝　누런 바탕 점을 뿌려 금빛 문득 가득하고
90 有綠墨沿毛堪摘　초록빛에 검은 테두리 솜털조차 딸 수 있네.
91 齒齒綺石哥窯文　뾰족뾰족 무늬 바위 가요(哥窯)의 문양인데
92 絳花散錢勝刻畫　붉은 꽃 돈 흩은 듯 새긴 획보다 낫다.

이제 제 9폭이다. 큰 나비가 아래쪽에 포진해있고, 상단에는 큰 나비 한 마리가 거리를 두고서 시원스레 날고 있다. 3구에서 '황리쇄점(黃裡灑點)'은 은점표범나비인가 싶고, '유록흑연(有綠墨沿)은 초록 바탕에 검은 테두리가 있다는 의미이니 호랑나비과의 나비를 말한 듯하다. 91구의 가요(哥窯)는 송나라 때 용천현(龍泉縣)의 장(章)씨 형제가 경영하던 가마 이름인데, 균열로 금간 무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화면 속의 바위에 균열문이 있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석주명은 제 9폭에서 나비 7종 12개체를 읽어냈다.

93 十幅秋光品菊紅　제 10폭은 가을볕에 붉은 국화 감상하니
94 遠紅雲白垂綬縌　애기풀 붉고 구름 흰데 인끈을 드리운 듯.
95 搖搖澄暉皆艷麗　흔들리는 맑은 볕은 모두 다 곱고 예뻐
96 相背相存意不極　등지고 마주하는 그 뜻이 끝이 없네.
97 或肩孔雀尾端睛　어떤 놈은 공작새 꼬리 끝의 눈동자를 매달았고
98 或背殷敦饕餮刻　어떤 놈은 은돈(殷敦)의 도철 조각 등에 새겼네.
99 或白布筋略背黑　흰 빛깔 힘줄 펴고 등은 살짝 검은 것과
100 或細作界間點墨　가늘게 경계 지어 검은 점이 찍힌 것도.
101 畵蝶畵花不畵香　나비와 꽃 그렸지만 향기는 못 그리니
102 筆所未到香襞積　붓이 닿지 못하는 곳 향기가 쌓였다네.

이제 마지막 제 10폭의 화면을 살필 차례다. 붉은 국화가 피어있고 바위에는 애기풀이 인끈처럼 아래로 드리웠다. 여기에 나비들이 비상하는데, 97구의 '공작미단정(孔雀尾端晴)'은 공작 꼬리 끝에 있는 눈알이 있는 나비이니, 이것이 석주명이 참으로 희한한 경우라고 한 남방공작나비의 개체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은돈도철각(殷敦饕餮刻)'이 나온다. 은돈(殷敦)은 은나라 때 청동기의 이름이고, 도철은 거기에 새겨진 괴수를 말한다. 호랑나비 계통의 화려한 무늬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흰 바탕에 등이 살짝 검은 나비와 가늘게 계선(界線)이 있는데 검은점이 찍힌 나비는 어떤 종류인지 특정하지 못하겠다. 석주명은 제 10폭에서 8종 8개체를 찾아냈다.

이상 10폭에 대한 소개가 모두 끝났다. 이제 제 103구부터 134구까지는 남계우의 나비 그림에 대한 총평과 의의, 그리고 석주명에 대한 덕담 등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다. 차례로 보겠다.

103 此圖誰所作　　이 그림은 그 누가 그린 것인가
104 南氏啓宇負才老窮厄　남계우는 재주 품고 늙도록 곤궁하다.
105 自號一濠不稱官　일호(一濠)라고 호를 짓고 벼슬길엔 뜻이 없어
106 手錄霞詩視拱璧　자하시(紫霞詩)를 손수 적어 보옥처럼 떠받드네.
107 天生嗜好好畵蝶　타고난 기호가 나비 그림 좋아해서
108 千種萬彙夾塵冊　천 가지 만 종류를 낡은 책에 끼워뒀네.
109 目察手追參毫芒　관찰하고 만져보며 털끝까지 살펴보아
110 園中態從手中獲　동산 속 나비 자태 손 위에서 얻었구나.
111 和色工到老逾神　빛깔 섞는 솜씨는 늙어 더욱 신묘하여
112 眞意眞令衆師辟　참된 뜻 뭇 화공이 피하게끔 하였다네.
113 傳言燕服逐飛蝶　전하기를 평복 입고 나는 나비 쫓아가서
114 十里路距城中宅　십리나 떨어진 성안 집서 잡았다지.
115 梓慶削鐻驚鬼神　재경(梓慶)이 편종 깎자[14] 귀신 솜씨 다 놀랐고
116 丈人承蜩無物易　매미 잡는 장인(丈人)[15]조차 쉬운 일이 없었다네.
117 流俗寧知獨造妙　세상사람 독보적인 그 조예를 알까마는
118 猶推名蹟求塡閾　명품이라 추천하여 방 꾸미길 구한다네.

먼저 남계우가 높은 재주를 품었으면서도 늙도록 곤궁한 삶을 살았다 하고, 자하 신위의 시를 아껴 직접 친필로 그의 시집을 옮겨 적어 보배로 간직한 이야기를 썼다. 남계우가 친필로 쓴 자하 시집은 석주명이 쓴 자신의 논문에서도 언급이 보인다. 이 시집은 신위의 시 18권을 남계우가 손수 베껴 쓴 책으로, 당시 충남 예산에 사는 남계우의 자산 집안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였다.[16] 석주명이 알려준 정보다. 위당이 이 작품을 지을 때 석주명이 남계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림 속 각종 나비 이름도 따로 일러주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계우는 낡은 책에 온갖 종류의 나비를 끼워 보관했고, 그가 물감을 섞어 온갖 영롱한 빛깔을

14) 《장자(莊子)》 달생(達生)에 "명공(名工) 자경이 나무를 깎아서 악기[鐻]를 만들자, 보는 자가 귀신의 솜씨와 같다고 놀랐다." 하였다.
15)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에 숲 속을 지나다가 어떤 꼽추가 매미를 잡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매미를 줍듯이 하고 있었다. 이에 공자가 무슨 도(道)가 있느냐고 물으니, 꼽추가 답하기를, "나의 몸가짐은 마치 베어 낸 나무등걸 같고 나의 팔놀림은 마치 나뭇가지 같다." 하자, 공자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의지(意志)가 헛갈리지 않고 통일되면 귀신에 가깝게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 꼽추노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였다. 《莊子 達生》
16) 석주명,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 『朝鮮』, 1939년 1월호, 82면.

만들어낸 솜씨는 전문 화공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어 그가 평상복 차림으로 동대문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나비를 잡아왔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역시 석주명의 전언에 따라 기술했다. 그의 귀신같은 그림 솜씨가 점차 호가 나자,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명품으로 여겨 너나없이 구해 방안의 장식품으로 삼고자 했다.

119 樸學開源藝搖實　박학(樸學) 근원 열리자 예단에도 결실 거둬
120 虛飾自喜或厭斥　헛된 꾸밈 좋아한다 싫다 배척 당하기도.
121 惠寰臨淵詩堪史　이용휴와 이양연은 시로 역사 감당했고
122 茶山叢書哀民惻　다산옹의 총서는 백성 고통 슬퍼했네.
123 我見此畵爲斂衽　이 그림을 내가 보고 옷깃을 여미나니
124 學風流貫此其則　학풍이 일관되어 이 규칙을 본받았지.
125 南蝶卞猫窮物狀　남나비와 변고양이 사물 형상 잘 그리니
126 敢以丹靑道厥域　감히 그림 가지고서 영역을 말한다네.
127 南公之蝶此尤善　남계우의 나비는 더더욱 훌륭해서
128 又奇歷久彩不蝕　세월 가도 색채가 변치 않음 기이하다.

다시 제 119구에서 128구에 이르는 10구는 남계우의 호접도가 갖는 의의와 위상을 밝힌 대목이다. 박학(樸學)은 박실(樸實)한 학문이니 다름 아닌 실학(實學)의 다른 표현이다. 실학의 학풍이 열리면서 예단에서 실질을 숭상하는 기풍이 일어났다. 이전 시기 학문과 예술이 중국풍을 본뜨고, 지나친 과장과 허세를 일삼았던 것에서 벗어났다.

위당은 이 같은 실학풍의 대표로, 시단에서 이용휴(李用休, 1708-1782)와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을 꼽았고, 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열수총서(洌水叢書)』를 들었다. 이용휴와 이양연은 현실의 풍정을 절묘하게 포착해낸 시풍으로 당대에 이름이 높았던 시인이다. 다산의 『열수총서』는 1936년 위당 자신이 주선해서 『여유당전서』로 펴냈기에, 두 시인의 시풍과 다산의 애민정신에 얹어 남계우의 실사 호접도가 다른 한 축을 떠받들만하다고 높인 것이다.

남나비와 변고양이는 나비 그림을 잘 그린 남계우와 고양이 그림에 특장이 있었던 변상벽의 별명이다. 이중에서도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이미 석주명이 훌륭하게 증명했듯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과학적 관찰이 돋보이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임에랴.

129 百年幸逢石君歎　백년 만에 다행히도 석군의 감탄 만나
130 緣錦軸牙重拂拭　비단 둘러 찌를 달아 다시 닦아 꾸몄다네.
131 掛向人間演與衆　세상 향해 걸어두고 무리에게 보여주니
132 九原欲回舊魂魄　저승에서 옛적 혼백 다시 살아 나온듯해.
133 公非但畵自有抱　공은 그림 만 아니라 포부 또한 갖췄으니
134 微君誰歟一剖劈　그대 아님 그 누가 한번 갈라 알아보리.

끝은 석주명에 대한 칭찬으로 마무리했다. 그동안 이토록 훌륭한 작품이 묻힌 채 세상에 안 알려졌는데, 석주명이 이를 보고 놀라, 표구를 해서 병풍으로 꾸며놓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논문을 써서 해외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잊혔던 남계우의 그림과 그의 예술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대가 남계우의 인간과 포부까지 세상에 알려주었으니, 석

주명이 아니고야 어찌 우리가 남계우를 알 도리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해서 위당은 남계우의 <호접도십곡병>의 열 폭 그림을 총 7언 134구에 달하는 장편시로 재현해냈다.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실물 그림과의 정확한 비교 작업이 마저 이루어지면, 우리 학술 및 예술사의 한 흐뭇한 광경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Ⅴ. 맺음말

이상 국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자신을 따르던 나비학자 석주명을 위해 써준 한시 1수와, 석주명이 소장했던 나비 화가 남계우의 열 폭 병풍을 위해 써준 장편 한시 1수를 소개했다. 석주명의 남계우론, 위당의 석주명론, 위당의 남계우론으로 갈래를 두어 정리했다.

남계우는 나비 그림으로 알려진 화가였을 뿐인데, 그의 그림 속에 담긴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에 주목하여 그것의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처음으로 자리매김 한 것은 나비학자 석주명이었다. 그는 남계우의 그림을 꼼꼼히 분석하여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나비의 개체 분류 작업까지 진행해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했고, 「남나비전」까지 지어 그의 생애를 정리하기 까지 했다.

석주명의 이같은 활약에 감동하여 위당 정인보는 두 수의 한시를 써주었고, 그것은 각각 석주명론과 남계우론이라 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의 실물이 확인된다면, 한 폭의 그림에 대해 세계적인 나비학자 석주명이 전문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국학자 정인보가 이를 세밀하게 묘사한 장편의 한시를 남긴 아주 희귀한 작품이 될 것이다.

나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두 편의 한시를 번역하고 분석 소개하는데 그쳤다. 나비 연구자들과 회화사 연구자들의 후속 작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석주명,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 『朝鮮』,1939년 1월호), 80-87면.

석주명, 「朝鮮産蝶類研究史」, 『朝光』, 1940년 2월호, 286-289면.

석주명, 「一濠南啓宇ノ 蝶圖ニ就テ」(第2報), 『朝鮮博物學會雜誌』(朝鮮博物學會, 1940. 8. 20) 제 7권 제 28호, 15-19면.

석주명, 「南나비傳」, 『朝光』 1941년 3월호, 257-259면.

석주명,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신양사, 1992.

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년. 총 6책.

정인보 지음, 정양완 옮김, 『담원문록』, 태학사, 2006년. 상하 2책.

김삼웅, 『위당 정인보 평전』, 채륜, 2016.

김영애, 「남계우(1811-1890)의 회화관과 호접도」, 고려대 석사논문, 2009. 6.

윤용택 외,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이병철, 『위대한 학문 짧은 생애』, 아카데미 서적, 1988.





石居宙明治博物[學]士專精蝶類蔚爲名家敬其究心寂寞用志不分每晤輒爲移晷頃求余墨跡乃賦此詩書贈

東風三月蛺蝶飛大者小者出[沒]奇一例汎汎看[粉翼]孰居無事細研推有才且勤[吾]獨向此物殫心思深山絶徑足重繭庭曲墻頭眼常馳分[利]形色入毫[芟]牝牡老幼無參差亦有南北土以別亦有後先候爲期授徒崧陽近山澤弟子捕蝶以娛師先生[五]色顧笑汝良苦八域吾今未見稀不咸山上池[漢]挐白雲席犀回瞥見異蝶林間度奇景於我何有哉課罷一室蝶如海倦極對此卽心開久久神行不以目秩然自整不待爲滕王萬蝶自粗筆柳汝李譜豈[方今東]足披[西]學日殖笛葉不肯遺半畦倩君精博與之相吐欽有時員輿改色一蝶知男兒善隨瀼瀼衆[游泳]決起一層要使水面皁猶然志壯進未已又討古籍辨然疑廢人如我亦屢訪病枕爲君軒雙眉學無小大期得實透處宇宙相往來盡道[此]蝶不關人[事]有無關人何足訾世嬾茲土人物[自]吾家事治已[逮]況復森羅皆交錯從古一物恥或遺榮辱得卷總[錯錯]能樂方知天與才金朱[黃]黑晚無數花徑扶杖日午時滾飛雜鬪從汝亂早入君手不紊絲

